

현안과 과제

- 사회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
- G7 비교로 본 한국의 경제·사회 위상과 시사점

목 차

■ 사회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

- G7 비교로 본 한국의 경제·사회 위상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비교 방법 및 데이터	2
3. 주요 결과	4
4. 시사점	1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사회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

- G7 비교로 본 한국의 경제·사회 위상과 시사점

■ 개 요

한국은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사회지표 측면에서는 G7 국가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은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 등을 바탕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승격된 바 있다. 또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순위에서 27위를 기록하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일부 G7 국가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부 부문별로 경제성과 부문에서 한국은 22위, G7 평균은 17위를 기록한 반면, 사회여건 부문에서 한국은 35위, G7 평균은 25위를 기록하며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경제부문에서의 성과에 비해 사회 발전 측면에서 부진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과 G7 간 경제 및 사회지표 비교·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이 선진국을 넘어 G7에 진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비교 방법 및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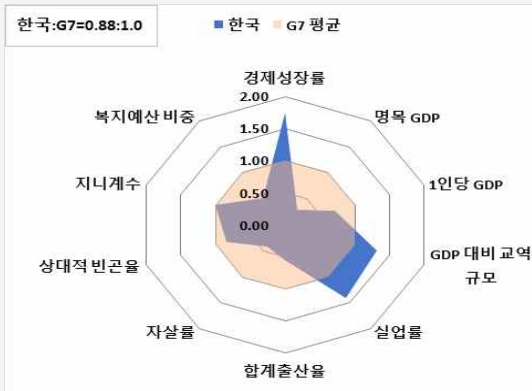
한국과 G7의 경제·사회부문 지표에 대한 비교 및 평가를 위해 각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 5개씩을 선정하여 각 지표의 수준을 G7 국가 평균과 비교하였다. 경제부문의 지표로는 경제 규모와 안정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경제성장률, 명목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GDP 대비 교역 규모, 실업률 등 5개 지표를 선정했다. 단, 비교 시기는 각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했다. 사회부문의 지표로는 합계출산율(인구문제), 자살률(사회의 건강성),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 복지예산 비중(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 등을 나타내는 5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시기는 세부 지표들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발표 시기도 달라 국가별 지표별로 가장 최신 연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비교 방법은 지표별 G7 국가들의 평균을 1.0p로 환산한 후 국가별 상대 수준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는데 비교 지표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다.

■ 주요 결과

① 종합

한국의 경제·사회지표 종합은 0.88p로 G7 평균보다 낮고, 경제적 성과가 사회지표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지표를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은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G7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G7 평균보다 1.09배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발전 정도는 G7 평균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 G7의 경제·사회지표 수준 >



< 국가별 경제·사회지표 수준: 종합 >

국명	종합(p)	경제(p)	사회(p)
한국	0.88	1.09	0.67
미국	1.31	1.78	0.84
일본	0.88	0.89	0.88
영국	1.04	1.05	1.02
프랑스	1.06	0.91	1.20
독일	1.14	1.15	1.14
이탈리아	0.89	0.61	1.16
캐나다	0.99	0.97	1.00
G7 평균	1.00	1.00	1.00

자료 : World Bank, OECD, 현대경제연구원.

- 주 1. 경제지표는 2019년 기준, 사회지표는 국가별 가장 최신 연도 기준.
- 2. 종합은 10개 지표, 경제와 사회는 각각 5개 지표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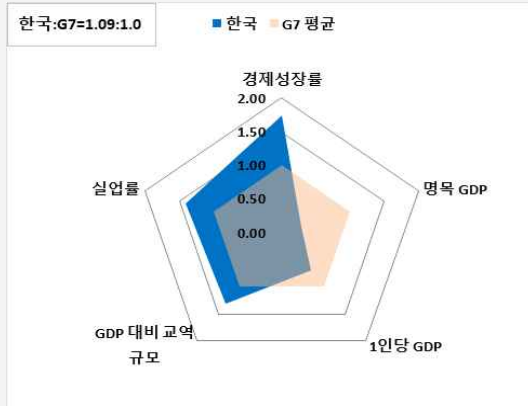
② 경제지표 종합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G7 평균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제지표 종합은 G7 평균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지표 종합은 1.09p로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1.78p), 독일(1.15p)에 이어 경제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0.97p), 프랑스(0.91p), 일본(0.89p) 이탈리아(0.61p) 등은 G7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③ 사회지표 종합

사회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G7 평균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사회지표 종합은 G7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사회지표 종합은 0.67p로 G7 국가 중 사회지표 종합이 가장 높게 나타난 프랑스(1.20p)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G7 국가 중 낮은 사회지표 종합을 기록한 미국(0.84p), 일본(0.88p)과 비교 시에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 G7의 경제지표 수준 >



< 한국과 G7의 사회지표 수준 >



④ 부문별 비교

경제성장률, 명목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GDP 대비 교역 규모,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선정하여 G7 국가와 한국의 경제 수준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부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75p를 기록하여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규모)** 한국의 명목 GDP 규모 부문은 0.29p 수준으로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 규모)** 2019년 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0.71p로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교역 규모)** 한국의 GDP 대비 교역 규모 부문은 1.32p로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록하였다. **(실업률)** 한국의 실업률 부문은 1.41p로 G7 국가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이었다.

합계출산율, 자살률,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복지예산 비중 등 주요 사회지표를 선정하여 G7 국가와 한국의 사회 발전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부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0.55p를 기록하여 G7 평균 대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 한국의 자살률 부문은 0.43p 수준으로 G7 평균 대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의 건강성이 우려된다. **(상대적 빈곤율)**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부문은 0.84p로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한국의 지니계수 부문은 1.00p로 G7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 비중)**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 부문은 0.52p로 G7 평균 대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 시사점

우리나라가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지표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향후 G7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선진국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경제는 물론 사회지표 개선 측면에서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추진으로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극복하고 사회지표 면에서도 선진국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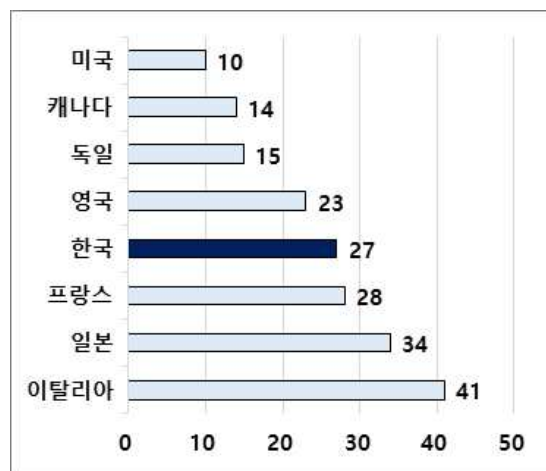
- 한국은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사회지표 측면에서는 개선이 부진한 모습
 - 한국은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며 세계 경제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
 - 한국은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승격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일부 G7 국가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제부문의 성과에 비해 사회여건의 성과는 부진함
 - 한국은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여 G7 국가 중 프랑스(28위), 일본(34위), 이탈리아(41위)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
 - 세부 부문별로 경제부문의 성과는 한국은 22위, G7은 평균 17위인 반면, 사회여건은 한국은 35위, G7은 평균 25위로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의 사회지표 개선이 부진한 것으로 우려¹⁾
 - 본 보고서는 한국과 G7 국가를 경제·사회지표 측면에서 비교하고, 향후 한국이 선진국을 넘어 G7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

< UNCTAD의 국가 분류 >

그룹A(아시아·아프리카) 99개국	
그룹B (선진국) 32개국	안도라, 아이슬란드, 산 마리노,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일본, 스위스,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터키,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몰타, 핀란드, 모나코,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뉴질랜드, 미국, 그리스, 노르웨이, 바티칸시국, 포르투갈, 한국
그룹C(중남미) 33개국	
그룹D(동구권) 25개국	

자료 : UNCTAD.

< 2022년 한국·G7 국가경쟁력 순위 >



자료 : IMD.

1) IMD는 (정부 효율성) 분야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사회여건을 측정하며, 사회여건의 산출조건으로 (소득재분배 정도), (인구고령화 정도), (성별 격차) 등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함.

2. 비교 방법 및 데이터

- 경제와 사회부문을 대표하는 지표 5개씩을 선정하여 각 지표 수준을 G7 국가 평균과 비교
 - (경제부문 지표) 경제 규모와 안정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경제(GDP, 실질)성장률, 명목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GDP 대비 교역 규모, 실업률 등 5개 지표를 선정
 - 시기는 각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함
 - (사회부문 지표) IMD 국가경쟁력 평가 사회여건(Social Framework) 세부지표 중 하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인구문제), 자살률(사회의 건강성),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 복지예산 비중(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 등 5개 지표를 선정
 - 시기는 세부지표들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발표 시기도 달라 국가별 지표 별로 가장 최신 연도를 기준으로 함
 - (비교 방법) 지표별 G7 국가들의 평균을 1.0p로 환산한 후 국가별 상대 수준을 산출하여 비교²⁾

< 한국과 G7의 경제·사회 비교를 위한 지표 >

구분	지표명 및 선정 이유	시기	
경제	1. 경제(GDP)성장률	2019년	
	2. 명목 GDP 규모	2019년	
	3. 1인당 GDP 규모	2019년	
	4. GDP 대비 교역 규모	2019년	
	5. 실업률	2019년	
사회	1. 합계출산율	인구문제의 심각성 비교	2020년
	2. 자살률	사회의 건강성 비교	국가별 최신 연도
	3. 상대적 빈곤율	소득 불평등 정도 비교	
	4. 지니계수		
	5. 복지예산 비중	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 비교	

2) 단, 비교 지표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석 및 활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

<참고> IMD 국가경쟁력 사회여건(Social Framework) 평가 지표

- IMD 국가경쟁력 사회여건 평가 지표는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하드 데이터 9개, 서베이 데이터 4개, 베이직 데이터 3개임

< IMD 국가경쟁력 사회여건(Social Framework) 평가 지표 >

구분	지표명 및 의미
하드 데이터 (9개)	• 살인 : 의도적인 살인, 인구 10만 명당 비율
	• 인구 고령화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 지니계수 : 소득분배지표로 원전 평등 0, 불완전 평등 100
	• 소득분배 :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가구 비중
	• 여성 국회의원 : 전체 의석 중 여성 비중
	• 실업률-성별 : 남녀 실업률
	• 남녀 불평등 : 성불평등지수(UNDP)
	• 가처분소득 : 남성 대비 여성 비율
	• 언론의 자유 : 국경없는 기자회, 세계언론자유점수
서베이 데이터 (4개)	• 정의 : 정의는 공정하게 집행된다.
	•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 :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이 매우 낮다.
	• 사회적 결속력 : 사회적 결속력이 높다.
베이직 데이터 (3개)	• 소득분배-하위 10% :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 비중
	• 소득분배-상위 10% :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 비중
	• 소득분배-하위 40%의 성장 :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가구 비중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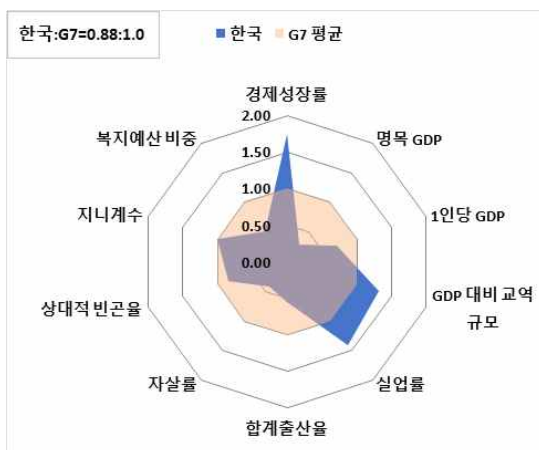
자료 : IMD.

3. 주요 결과

① 종합

- 한국의 경제·사회지표 종합은 0.88p로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경제지표의 성과가 사회지표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국의 경제·사회지표 종합은 0.88p로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G7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G7 평균뿐만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G7 6개국보다 낮은 수준
 - 미국의 경제·사회지표 종합은 1.31p로 가장 높고 일본은 0.88p로 가장 낮음
 - 경제·사회지표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은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사회 발전으로 G7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 G7 평균보다 1.09배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G7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 발전으로 G7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한국과 G7의 경제·사회지표 수준 >



자료 : World Bank,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경제지표는 2019년 기준, 사회지표는 국가별 가장 최신 연도 기준.

< 국가별 경제·사회지표 수준: 종합 >

국명	종합(p)	경제(p)	사회(p)
한국	0.88	1.09	0.67
미국	1.31	1.78	0.84
일본	0.88	0.89	0.88
영국	1.04	1.05	1.02
프랑스	1.06	0.91	1.20
독일	1.14	1.15	1.14
이탈리아	0.89	0.61	1.16
캐나다	0.99	0.97	1.00
G7 평균	1.00	1.00	1.00

자료 : World Bank,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경제지표는 2019년 기준, 사회지표는 국가별 가장 최신 연도 기준.
 2. 종합은 10개 지표, 경제와 사회는 각각 5개 지표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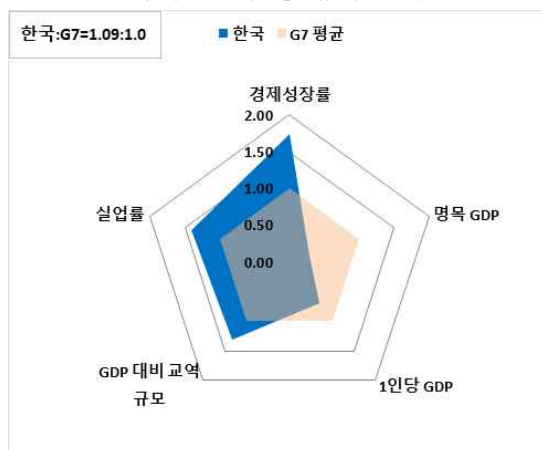
② 경제지표 종합

-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G7 평균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제지표 종합은 G7 평균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제지표 종합(1.09p)은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경제지표 종합은 경제성장률 부문 등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1.09p를 기록하며 미국(1.78p), 독일(1.15p)에 이어 높은 수준을 달성
 - 특히 캐나다(0.97p), 프랑스(0.91p), 일본(0.89p) 이탈리아(0.61p) 등은 G7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사회지표 종합

- 사회 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G7 평균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사회지표 종합은 G7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사회지표 종합(0.67p)은 G7 평균보다 낮아 사회지표의 발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대부분 지표에서 미흡함을 보이며 0.67p의 사회지표 종합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프랑스(1.20p)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
 - 특히 한국은 G7 국가 중 낮은 수준의 사회지표 종합을 기록한 미국(0.84p), 일본(0.88p)과 비교 시에도 큰 격차를 보임

< 한국과 G7의 경제지표 수준 >



자료 :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9년 기준.

< 한국과 G7의 사회지표 수준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가별 가장 최신 연도 기준.

④ 부문별 비교

○ 경제(GDP)성장률 및 명목 GDP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G7 평균보다 높지만, 명목 GDP 규모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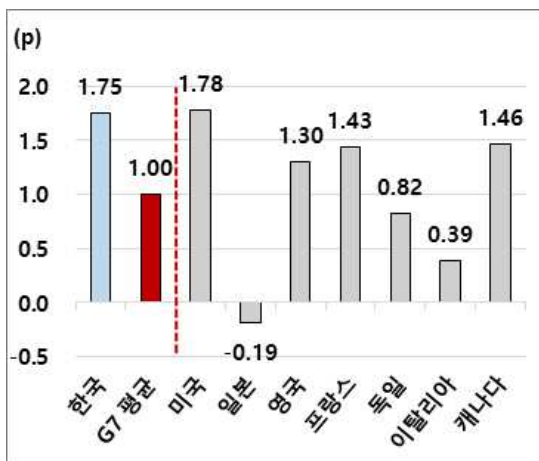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

- 한국의 경제성장률 부문은 1.75p로 미국(1.78p)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한국은 G7 국가 중 양호한 성과를 보인 캐나다(1.46p), 프랑스(1.43p) 등과 비교 시에도 큰 격차를 보이며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보임
- 한편, 일본의 경제성장률 부문은 -0.19p로 가장 낮은 수준임

- (명목 GDP 규모)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 규모 부문은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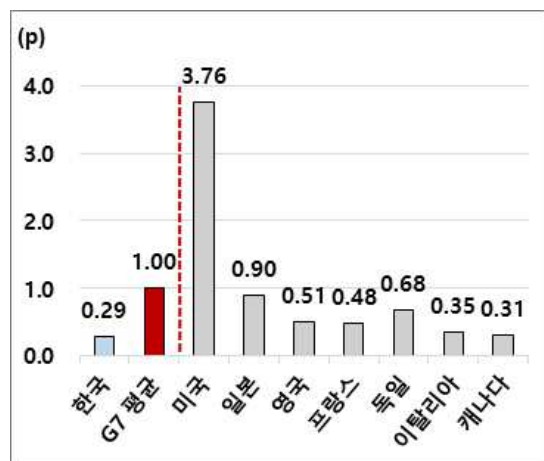
- 한국의 명목 GDP 규모 부문은 0.29p로 G7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 G7 국가 중 미국의 경우 3.76p에 달하며 그 뒤를 이은 일본(0.90p)이 G7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미국이 G7 평균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명목 GDP 규모 부문은 0.54p이며, 특히 이탈리아(0.35p), 캐나다(0.31p) 등은 한국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G7의 경제성장률 부문 >



자료 :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9년 기준.

< 한국과 G7의 명목 GDP 규모 부문 >



자료 :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9년 기준.

○ 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G7 평균보다 낮고, GDP 대비 교역 규모는 G7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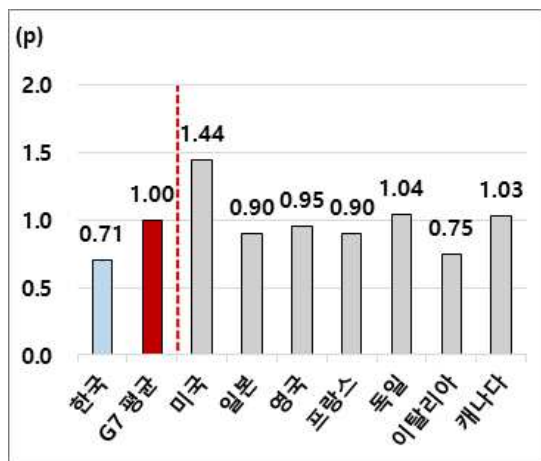
- (1인당 GDP 규모)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

- 한국의 1인당 GDP 규모 부문은 0.71p로 여타 G7 국가보다 낮은 1인당 GDP 규모를 기록
- G7 국가 중 미국(1.44p)의 1인당 GDP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1.04p), 캐나다(1.03p) 등이 뒤를 이음
- G7 국가 중 이탈리아(0.75p)만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다른 G7 국가는 0.90p를 상회

- (GDP 대비 교역 규모)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교역 규모 부문은 1.32p로 G7 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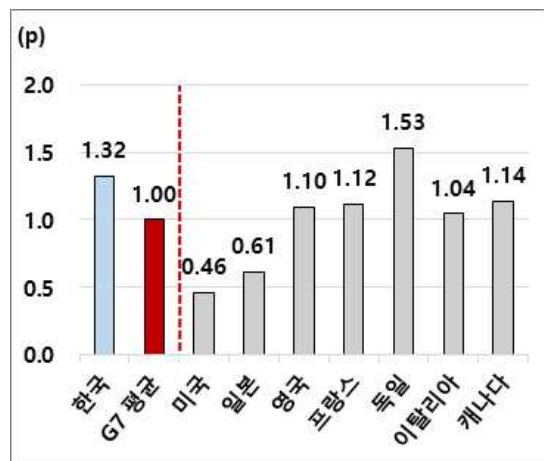
- G7 국가 중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는 독일(1.53p)뿐이며, 독일을 제외한 G7 국가의 평균은 0.91p임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G7 5개국의 GDP 대비 교역 규모가 1.00p를 상회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각각 0.46p, 0.61p를 기록하여 G7 내에서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G7의 1인당 GDP 규모 부문 >



자료 :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9년 기준.

< 한국과 G7의 GDP 대비 교역 규모 부문 >



자료 :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9년 기준.

○ 한국의 실업률은 G7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합계출산율³⁾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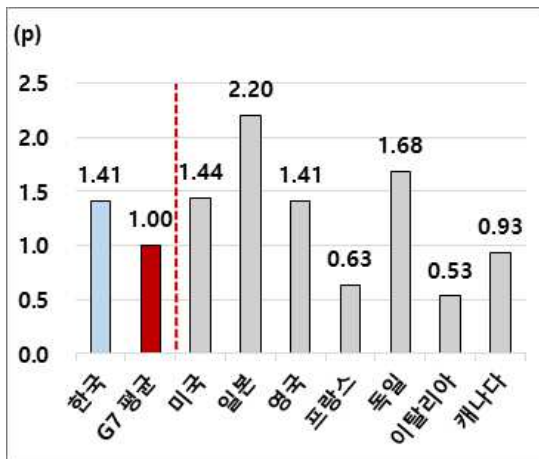
- (실업률) 한국의 2019년 실업률은 G7 국가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실업률 부문은 1.41p로 G7 평균과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을 기록
- G7 국가 중에서는 일본(2.20p), 독일(1.68p), 미국(1.44p) 순으로 실업률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
- 반면, 이탈리아(0.53p), 프랑스(0.63p), 캐나다(0.93p) 등은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업률 부문에서 미흡한 모습

- (합계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 부문은 0.55p로 G7 평균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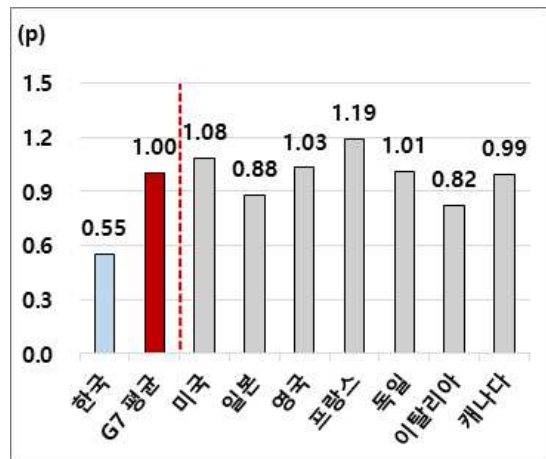
- 한국의 합계출산율 부문은 0.55p로 G7 국가 중 합계출산율 부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한 프랑스(1.19p)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은 G7 국가 중 G7 평균 대비 합계출산율 부문의 성과가 미흡한 일본(0.88p), 이탈리아(0.82p), 캐나다(0.99p)와 비교 시에도 큰 격차를 보여 인구문제에 있어 G7 국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우려됨

< 한국과 G7의 실업률 부문 >



자료 :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9년 기준.

< 한국과 G7의 합계출산율 부문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가별 최신 연도 기준.

3)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며,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

○ 한국의 자살률 부문과 상대적 빈곤율⁴⁾ 부문은 G7 평균에 비해 크게 미흡하여 사회의 건강성과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부진한 것으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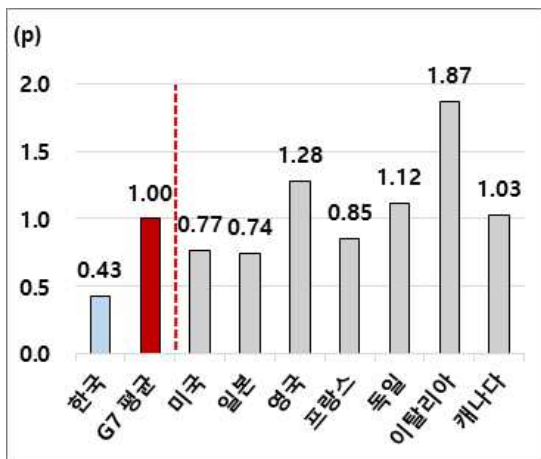
- (자살률) 한국의 자살률 부문은 0.43p로 G7 평균 대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의 건강성이 우려됨

- 한국의 자살률 부문은 0.43p로 G7 국가 중 자살률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이탈리아(1.87p)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한국은 G7 국가 중 G7 평균 대비 자살률 부문이 미흡한 수준인 미국(0.77p), 일본(0.74p), 프랑스(0.85p)와 비교 시에도 큰 격차를 보여 사회의 건강성 측면에서 G7 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진 것으로 우려

- (상대적 빈곤율)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부문은 0.84p로 G7 평균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 측면의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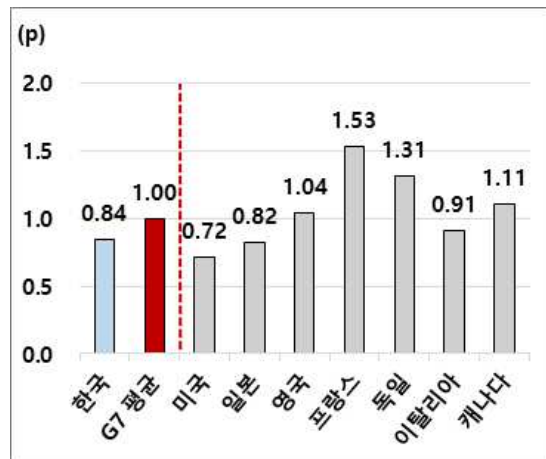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부문은 0.84p로 G7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프랑스(1.53p)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임
- 특히 G7 국가 중 한국보다 상대적 빈곤율 부문이 부진한 국가는 미국(0.72p)과 일본(0.82p)뿐이며, 소득 불평등 측면의 개선이 미흡할 가능성이 우려됨

< 한국과 G7의 자살률 부문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가별 최신 연도 기준.

< 한국과 G7의 상대적 빈곤율 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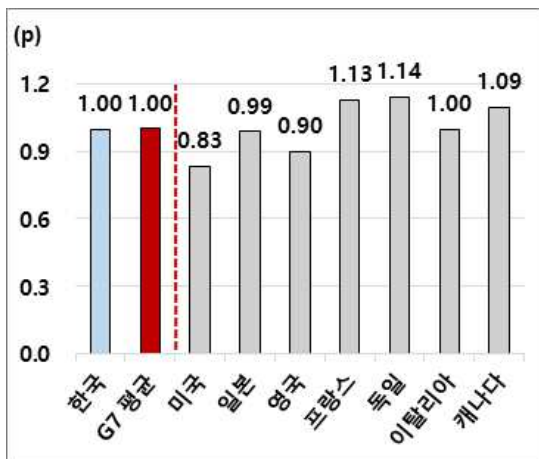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가별 최신 연도 기준.

4)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과 함께 소득분배지표로 활용됨.

○ 한국의 지니계수⁵⁾는 G7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복지예산 비중은 G7 평균 대비 미흡하여 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이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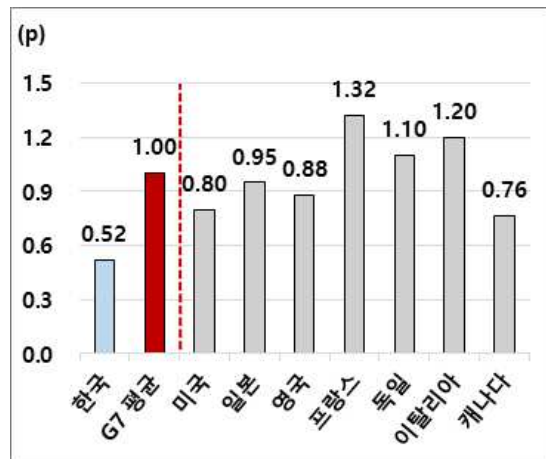
- (지니계수) 한국의 지니계수 부문은 1.00p로 G7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G7 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의 지니계수 부문은 1.00p로 G7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독일(1.14p)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한국의 경우 여타 G7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지니계수 부문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복지예산 비중)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 부문은 0.52p로 G7 평균 대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삶의 행복 증진 기반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됨
 -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 부문은 0.52p로 G7 국가 중 복지예산 비중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프랑스(1.32p)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한국은 G7 국가 중 G7 평균 대비 복지예산 비중 부문이 부진한 미국(0.80p), 일본(0.95p), 영국(0.88p), 캐나다(0.76p)와 비교 시에도 크게 미흡하여 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G7의 지니계수 부문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가별 최신 연도 기준.

< 한국과 G7의 복지예산 비중 부문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가별 최신 연도 기준.

5) 지니계수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4. 시사점

- 우리나라가 경제부문에서는 선진국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사회지표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후 G7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첫째, 선진국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한국은 경제지표 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 약화 가능성 또한 심화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을 위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에 0.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OECD 장기전망),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인 인구구조 문제 또한 심화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함

둘째, 경제부문 및 사회지표 개선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출산율은 경제와 사회 부문 모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결혼과 임신 전후, 양육, 교육에 이르는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저출산은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문제와 직결되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구축하는 동시에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함

셋째,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극복하고 사회지표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임금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G7 대비 취약한 상황이며 GDP 규모 대비 복지예산 투입 비중도 저조한 수준
- 이에 분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회성 지원책 외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가계로의 소득분배경로를 강화하는 정책의 구축이 중요함
- 한편, 자원배분정책 등 복지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정책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도 연관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조달방안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분배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정책 설계를 통해 사회지표의 전반적인 개선과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로소 선진국에서 더 나아가 G7에 진입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RI**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